

장쾌한 스케일에 감춰진 그 무엇

전쟁영화와 원작

김정룡 · 영화평론가

“그들은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Apocalypse Now> 촬영은 'now'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가? 필리핀 정글에서의 촬영 100일째, 언론은 정글에서 돌아오지 않는 코플라를 두고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그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나? 아니 왜 그리도 늦게 돌아왔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지옥의 묵시록>은 집념과 광기에 관한 영화이기 때문이다. 아다시피 이 영화는 현대 국제 정치의 지형을 바꿔버린 베트남전의 참상을 그린 영화다. 그러나 동시에 베트남 전에 참여해 자신의 왕국을 세운 커츠 대령(말론 브란도)의 집념이 드러난 영화이며, 또 그를 찾아나서는 윌라드 대위(마틴 쉰)의 집념이 융해된 영화이다. 그리고 이 모두를 그린 코플라의 집념이 담긴 영화이다. 윌라드가 커츠를 찾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 영화는 미국의 기원을 거슬러 정체성을 묻고 있다. 전작인 <대부>에서 미국의 자본주의를 마피아에 빚대어 비판했던 코플라가 이번에는 60년대 미국의 악몽인 월남전에 대해 이색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 초월한 이데아로?

이렇게 부끄러운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몇 해전 일이다. 마감에 쫓겨 대충, 정말 대충 <지옥의 묵시록>에 관한 기억을 허겁지겁 추스려 쓴 이 원고는 그러나 다행히도 담당 지면의 갑작스런 변화에 따라 발표되지 못했다. 다행스런 일이었다. 이런 시각은 사실 상 나의 것이 아니라 미국인의 것이기 때문이다. 겸손도 자학도 아니다. 괜히 시간을 탕했지만 돌아보면 이런 글은 영화의 등 뒤에 들러붙은 후광과 감독의 이름에 눈이 먼 평자의, 그럴싸하게 말을 만들어 내려는 카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뭐, 그렇다고 지금의 내 심미안이나 주관이 그때보다 나아졌다는 얘긴 아니고, 아무튼 이 글의 불발을 계기로 필자에게 영화를, 특히 전쟁영화를 다시 볼 마음이 생겼다.(그 뒤 언젠가 우연히 그

글을 다시 보고 느낀 참담함이란!)
 허나 다시 봐도 전쟁 영화는 참 사람 눈을 현혹하기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건 예컨대 위의 영화가 조셉 콘라드의 소설 <Heart of Darkness>에 기댄다는 '배경' 때문만도

아니고 3년 만에 정글에서 나온 영화에 칸느는 황금종려상을, 아카데미도 2개 부문의 상을 수여했다는 정보 때문만도 아니다. 더 큰 이유를 필자는 스펙터클에서 찾은 생각이다. 용단폭격을 감행하는 규모, 생과 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상황, 장쾌한 액션, 고독하고 비범한 마초(Macho) 캐릭터들의 끝모를 대행진. 이런 웅장한 구경거리에 몰두해서 그런 것 아닐까. 패전국의 이 기이한 영웅담이 전장을 넘고 시대를 벗어나 마침내 역사를 초월하는 하나의 이데아처럼 비친 까닭은?

전쟁의 외적 양상을 재연하려는 노력이 전쟁의 배경과 역사, 이데올로기를 가리고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 영화의 역사, 혹은 그렇게 보길 원하는 비평의 역사는 기실 장구하다. 미국 영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D.W. 그리피스의 <국가의 탄생>(1915년)은 좋은 예다. 이 영화는 토마스 디슨의 <The Klansman>을 토대로 하였는데, 루이스 자네티에 따르면 '이 조악한 삼류 소설 원작'은 영화보다 더 뻔뻔한 인종차별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소설을 읽지 못한 관객으로선 짐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영화보다 더 뻔뻔하다는 말이. 확실히 영화 내용은 '조악' 수준을 넘어서 있다. 흑인 폭동을 제압하는 KKK단의 활약상으로 오늘날 미국이 성립했다는 기둥 줄거리에 비추면 "백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미친 흑인의 주장" 등의 자막은 오히려 시대상을 반영한 애교로 봐줄 정도다. 그럼에도 <국가의

영화에서 전쟁의 외적양상을 재연하려는 노력은 전쟁의 배경과 역사, 이데올로기를 가리고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평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주류영화가들은 조악한 수준의 역사의식을 드러내는 그리피스의 <국가의 탄생>조차 '편지를 완성한' 공과 '대범한 이야기 스케일'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전쟁 블록버스터에 쏟아지는 비평은 찬사일색이다.

탄생)에 대한 주류 영화사자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다. 초점은 거의 대부분 '편지를 완성한' 공과 '대범한 이야기 스케일'에 맞춰져 있다.

마가렛 미첼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9년)도 예외는 아니다. 영화의 생략된 주부, 바람과 함께 사라진 주체는 미국 남북 전쟁 이전 남부가 지녔던 화려한 백인 부르주아 문화다. 그 시절, '검둥이' 노예와 행복하게 살았던 과거의 시절을 애달게 그리워하는 이런 기만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것 역시 스펙터클이다. 남북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비비안 리와 클라크 게이블의 사랑과 분노, 용기, 공포, 질투, 배신,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 위에 드리워진 고풍스런 세트, 처절한 참화, 그리고 촬영 도중 죽거나 해고된 네 명의 감독과 4천여명의 의상. 더 보낼 것 없는 전쟁 블록버스터에 쏟아지는 비평은 찬사일색이었다.

철지난 이데올로기 논쟁을 새삼스레 끄집어내 독자를 지루하게 만들 의도는 없다. 다만 수잔 헤이워드가 예리하게 지적한 바 "식민지화한 국가와 또 이전부터 식민지였던 국가에서도 전쟁 영화에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놀랍고도 미스테리한 사실과 더불어 그런 경이와 미스테리를 투명해질 때까지 추적해 들어가지 않는 비평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고 싶었을 따름이다.

소설의 긴장이 허물어진 영상

이미 편집자가 주문한 테마에서 셋길로 빠진 지 한참이다. 변명치곤 꽤 응색하게 들리겠지만, '원작의 영화화'에 성공한 사례를 나는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 뛰어난 전쟁 소설

을 새롭게 재해석하거나 깊이있게 각색한 영화로 글썽 뭐가 있을까? 우리 영화를 떠올린다면, <태백산맥>은 끄적했다. 다른 건 쫓혀두고 조정래 소설 열권을 독파하면서도 유지된 긴장이 불과 두시간으로 압축된 임권택 감독의 다이제스트 영상을 보며 허물어진 체험은 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남부군>이 넓혀놓은 최소한의 영토, 요컨대 '인간 선언'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얀 전쟁>은 처음엔 멀게 보였는데 요새 점점 <디어 헌터>와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범선의 소설에 기초한 유현목의 <오발탄>(1961년)은 다르다. 문예영화의 꼬리표를 떼어버려도 좋은 이 영화에는 단어와 문장, 행간이 미처 거두지 못한 버려진 삶의 이력들이 카메라로 언술되어 있다. 유감독의 영화가 대개 그러하듯 <오발탄>의 연출은 정교하다. 장조와 단조의 리듬을 교차하며 움직이는 카메라는 원경, 중경, 근경의 확확 닫힌 구도 안에 여섯 식구의 비상구 없는 생활을 응축시킨다. 한데 이걸 또 전쟁 영화는 아니군. 전쟁 후일담이지.

스탠리 큐브릭이라면 믿을 만하다. <영광의 길>(1957년)에는 초읽기에 몰린 폭탄과 병정놀음 따윈 없다. 로케이션의 선동적인 현장감과 스튜디오 세트의 정밀도를 자랑하지도 않는다. 여기엔 그저 부패한 군대가 있다. 그 시스템이 지휘하는 좌표없는 돌진이 있다. 영화는 그 복판에서 온 정신으로 회의하는 인간의 갈등과 공포를 드러낸다(이스트만 자보의 <레들 대령>을 이어서 보는 것도 썩 괜찮을 것이다). 큐브릭이 30년 뒤에 만든 <풀 메탈 재킷>을 단순히 베트남전에 관한 영화로 만나면 어딘가 좀 심심해 보일지 모른다. 반면에 마초집에 관한 영화적 풍자로 읽는다면, 살인기계로 변해가는 아메리칸 카우보이들의 얼굴에 장르의 영웅들이 겹쳐지는 예사롭지 않은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데 이들에게 원작이 있는지는, 음, 자신이 없다. ♦